

## 2019학년도 교내 음주예방 글짓기 대회

♥ 소 속 : 신태인중학교 2학년 1반 2번 이름 김용현

♥ 실시 일시 : 2019. 12.09. - 2019.12.13

제목 : 음주예방

술, 음주 어른들이 회식, 집에서 등등 술을 드시고는 한다. 술은 만 19세 미만은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은 즉슨 술을 청소년들에게 나쁘다는 것이다. 나는 술, 음주를 이렇게 생각한다. "사고는 마신다"

음주 기운이나, 여러가지 요인들을 풀기 위해 하지만 그로 인한 사건 사고들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여러 증상도 생길 수 있다. (ex) 알콜 중독, 알콜 의존증 등등.

비단 음주 어른들도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한창 심경에 변화가 심한 사춘기인 청소년이? 예전에 YouTube 를 보다가 음주와 또다른 주제인 흡연 이야기가 언급된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나 성인이나 병 치레가 없으니 괜찮잖아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고딩과 어른의 신체가 비슷한 지언정 아직 성장중인 것도 있고 외적 잡하게 되면 외적힘들어 진다고 생각한다. 음주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 인데도 몇몇 청소년들은 음주를 한다. 그럴 청소년이 음주를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성적, 친구 관계, 가족관계 등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성적 그리고 또 하나.